

東亞日報에 나타난 服飾研究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손 명임 · 김 진구

目 次	
I. 序 論	2. 衣服材料
II. 社會的 · 歷史的 背景	3. 衣服管理
III. 東亞日報의 創刊 背景	4. 머리 모양
IV. 服飾分析	5. 化粧 및 美容
1. 衣服의 種類	6. 衣服 附屬品
(1) 男子衣服	7. 白衣 廢止 및 染色衣 着用 獎勵
(2) 女子衣服	V. 結 論
(3) 兒童服	參考文獻

I. 序 論

近代以後 開化期에서 日帝時代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舊韓末 朝鮮 開港에 이어 西歐 帝國主義 列強에 의해 國權이 侵害당하고 日本에 의해 合邦된 歷史의 混亂期였다. 1876년 日本과 修好 條約을 締結하여 開港을 하게된 以後 西歐 帝國主義 列強의 勢力 다툼 가운데에서 우리 傳統 社會의 慣習은 거의 必然的으로 瓦解되기에 이르렀고 服飾의 變化 역시 이러한 時代的 狀況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時期의 服飾은 以前의 服飾과는 다른 視覺과 次元에서 理解되고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 時期는 王朝社會가 아니므로 實錄이나 都監 등의 資料가 없었기에 이에 따른 새로운 服飾 資料가 必要하게 되었다.

以前의 實錄이나 都監의 役割을 이 時期에 出版

되기 시작한 雜誌나 新聞이 擔當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新聞은 가장 빠르고 客觀的이며 또한 幅넓은 時代狀을 反映하여 주는 記錄이다. 이것은 以前의 王朝實錄이 兩班社會의 服飾을 爲主로 한 資料였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身分階級의 구분이 없어진 近代以後의 服飾 研究에 新聞이 좋은 資料가 되며 韓日合邦以後의 政治 · 社會 · 文化的 變化와 그에 따른 服飾 現象을 研究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資料임을 알 수 있다.

近代以後의 韓國 服飾 研究는 우리 服飾史上 가장 큰 變化라 할 수 있는 斷髮令의 施行과 洋服 着用的 許容이 있었던 重要한 時期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김 영희의 “開化期 洋服 導入과 受容 過程에 關한 研究”¹⁾, 李 松姬의 “開化期 服飾의 變遷과 그 要因”²⁾, 박 윤의 “開化期 男子 服飾의 研究”³⁾ 등이 近代以後의 韓國 服飾을 다룬

1) 김 영희, “開化期 洋服 導入과 受容 過程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 대학교, 1987.

2) 李 松姬, “開化期 服飾의 變遷과 그 要因”, 석사학위 논문, 이화 여자 대학교, 1984.

3) 박 윤, “開化期 남자 복식의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여자 대학, 1986.

論文들인데 대부분 甲午更張을 前後로 한 時期를 研究의 背景으로 삼고 있고 韓日合邦 以後 이러한 變化의 要因들이 社會全體에 어떤 形態로 얼마나 受容되었는지에 대한 研究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時期의 服飾에 대한 理解와 더불어 近代服飾 研究資料 提示가 必要하게 되었다.

本 研究는 東亞日報가 創刊된 1920년부터 1945년에 걸친 期間동안 服飾에 關係된 記事의 目錄을 만들어 이 時期의 服飾資料를 提示하고 目錄을 토대로 記事를 分析하여 當時의 服飾現像을 糾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資料 收集은 東亞日報 縮刷 影印本을 利用하였으며 1920년, 1926년, 1930년, 1936년에 있었던 東亞日報 停刊 措置와 1940년 強制 廢刊 措置로 인해 資料 收集이 不可能한 時期를 除外한 1920년 4월 1일 創刊號에서부터 1945년 解放 以前까지를 範圍로 정하였다. 범위를 1945년 까지로 局限한 것은 1945년 解放 이후는 政府樹立과 6.25등을 겪으며 現代로 구분되는 時期로서 以前의 日帝時代와는 歷史的으로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II. 社會的 · 歷史的 背景

1920년에서 1945년 까지의 時期는 朝鮮이 國權을 喪失하고 日本의 植民地 統治를 받던 時期로 흔히 日帝時代라 불리운다. 우리 歷史上 가장 큰 社會的 變革이 있었던 舊韓末 開化期의 뒤를 잇는 時期로 開化期의 社會外的인 變化가 우리 傳統社會 內部에 까지 定着한 時期라 하겠다.

開港 以後 外勢에 의해 우리는 政治 · 經濟的 變革을 甲申政變, 東學革命 등의 政治的 變革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東學 農民 運動이 日本의 干涉으로 失敗하게 되고 이에 日本이 우리 政府에 그들의 影響力을 強化하게 되어 實施된 것이 1894년 甲午更張이다. 이로 인해 身分制度의 撤廢, 斷髮令의 公布, 外國 衣服 制度의 許容 등 社會 全般에 걸쳐있던 傳統 社會의 構造的 崩壞를 가져오게 된다.

日本은 1858년 朝鮮보다 18년 앞서 美國에 의해 開港을 하고 西洋의 文物을 받아들여 軍國主義的

近代國家를 豎立한 다음 자신들이 經驗한 開港을 그대로 適用시켜 朝鮮을 開港시켰다. 그리고 朝鮮의 自主的 近代化 運動을 瓦解시키면서 段階적으로 浸透, 淸 · 日戰爭을 거쳐 英國의 支援下에 淸國과 帝政 러시아의 勢力을 韓半島에서 排除한 다음 1910년 朝鮮을 그들의 植民地로 強占하기에 이르렀다.

日本의 植民地 政策의 特徵은 民族 抹殺 政策과 植民地 收奪 政策의 融合이라 할 수 있다¹⁾. 西歐 帝國主義의 植民地 政策이 間接 支配와 直接 支配의 與否를 떠나 社會經濟的 收奪을 基本 目的으로 하고 被支配 民族의 民族 保存을 認定하였으며 民族文化 運動에 대해서도 그것이 直接的인 政治的 獨立 運動이 아닌 한 傍觀的이었던 것과 좋은 對照를 이룬다. 日本은 西歐 帝國主義의 植民 政策 위에 所謂 同化라는 이름으로 被支配 民族을 抹殺 消滅하여 自國의 從屬 身分層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1910년 韓日合邦과 함께 日本은 以前의 統監府를 朝鮮總督府로 바꾸고 데라우찌 마사요시 統監을 初代 總督에 任命하였다.

그는 所謂 武斷政治라 하여 武力에 依據한 支配 體制를 만들었다. 이것은 1876년 日本과의 不平等 條約이 締結된 이래로 熾烈하게 展開되던 造船의 抗日鬪爭이 合邦 以後 더욱 드높아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抗日鬪爭을 막기위한 法을 制定하고 憲兵으로 하여금 一般 警察任務를 擔當하도록 하는 憲兵 警察制를 實施하였다.

日本은 우선 1910년 8월부터 모든 言論 · 出版活動을 禁止시키는 한편 社會團體들을 모두 解散시켰다. <大韓協會>를 비롯하여 모든 愛國 啓蒙 團體들이 強制 解散 되었다. 「皇城新聞」 「大韓每日新聞」 등 愛國 啓蒙 運動을 주도하던 新聞들이 廢刊되고 「少年」을 비롯한 모든 啓蒙的 雜誌와 言論 機關들이 閉鎖되었다. 그리고 總督府 機關紙인 「每日新報」와 英文版 「서울프레스」, 日本 居留民들의 「京城日報」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彈壓 措置에 의해서 日本은 朝鮮人을 완전히 無力한 狀態로 묶어 두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武斷 政治는 抗日鬪爭을 더욱

1) 慎 鏞廈, 「韓國 近代史와 社會 變動」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0. p. 174.

深化시켜 國內外의 抗日運動을 活潑하게 만들었고, 1919년 3·1 獨立運動으로 이어지는 國內外 獨立運動勢力의 擴散을 招來하였다. 이로써 日本의 對韓 植民 政策의 變化가 일어났다. 이른바 文化政治를 標榜한 懷柔 政策으로 韓人系 民間紙 發行을 許可하고 私立 學校, 民立 大學 設立을 認可하는 등 社會 全般에 걸쳤던 統制를 緩和시켰다.

그러나 1931년 日本의 滿洲 侵略을 契機로 日本은 植民 政策을 再轉換하여 民族 抹殺 政策과 植民地 收奪 政策을 併行하였다.

朝鮮人에게 朝鮮 歷史의 教育은 물론 한글의 使用을 禁止시키고 모든 文化 行事를 彈壓하였으며 <皇國臣民化>를 教育의 目標로 삼아 日本 歷史와 日本語 教育을 徹底히 하였다. 1937년 中·日 戰爭이 勃發하자 創氏改名, 神寺參拜를 強要하였으며 1940년에는 韓人系 新聞·雜誌들을 廢刊하고 多數의 私立 學校와 宗教 學校들을 閉鎖하였다. 그리고 1941년 日本이 太平洋 戰爭을 挑發하여 제 2 차 世界大戰이 本格化 되면서 朝鮮社會 全體에 彈壓과 統制가 더욱 加重되어 8·15 解放을 맞을 때까지 繼續되었다.

Ⅲ. 東亞日報의 創刊 背景

新聞이 한 時代의 社會狀을 迅速하고 正確하게 나타내어 준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韓日合邦以後 日本이 朝鮮의 모든 言論 出版 活動을 禁止시켜 「皇城新聞」「大韓每日新報」등 愛國 啓蒙紙가 廢刊 당한 것도 新聞의 社會的 重要性을 감안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文化政治로의 轉換以後 變化 가운데 民間紙 出刊 許可가 包含된 것도 같은 脈絡에서 理解 되어진다.

3·1 運動以後 제 3 대 總督으로 就任한 사이토 오 미노루(齊藤實)는 1919년 9월 3일 總督府 및 所屬 官署에 대한 訓示에서 「時代의 進運과 民心의 歸響에 鑑하여 行政·司法 事務 各般에 걸쳐 다음 의 改善」을 加할 것」을 밝혔는데 이 訓示에서 “言論·出版·集會 등에 대하여는 秩序와 公安 維持에 無關한 限, 상당히 考慮를 加하여 民意의 暢達을 期”한다고 하는 것이 소위 文化 政策의 一統으로

民間紙의 許可를 公式的으로 示唆한 것이라 하겠다.

朝鮮總督府의 이 같은 方針에 金性洙, 李相協, 張德俊등이 뜻을 합하여 1919년 10월 9일 朝鮮總督府 警務局에 題號를 「東亞日報」, 發行人 檢編輯人을 李相協으로 한 新聞 發行 許可 申請書를 提出하였고 이듬해인 1920년 4월 1일 創刊號가 出刊되기에 이르렀다.

創刊 自體가 3·1 運動以後 不安한 民心을 수습하기 위한 宥和策에서 비롯된 만큼 創刊以後 東亞日報를 비롯 많은 民間紙들은 많은 壓迫과 製制를 받았다. 특히 東亞日報는 1940년 韓人系 新聞·雜誌 廢刊 措置에 의해 廢刊 되기까지 停刊 4회, 販賣 禁止 63회, 壓收 489회, 削除 2,423회 라는 彈壓을 받았다. 제 1 차 停刊은 日本 三種 神器를 批判한 論說로 1920년 9월 25일에, 제 2 차 停刊은 國際 農民 本部에서 보낸 三一 紀念辭를 報道한 1926년 3월 7일에, 제 3 차 停刊은 創刊 10周年인 1930년 4월 16일자에 美 「네이슨」지 主筆의 祝辭가 실린것으로 因해서였고 1936년에 있었던 제 4 차 停刊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優勝者 孫基禎의 日章旗 抹殺 事件으로 因해서였다.

Ⅳ. 服飾 分析

1. 衣服의 種類

(1) 男子 衣服

1) 洋 服

男子 衣服을 다룬 記事는 모두 25件으로 男子 洋服, 內衣를 주로 다루었다. 男子 韓服은 色衣着用 記事가 대부분이므로 白衣 廢止 및 色衣着用에서 다루었다.(附錄 I. 主題別 新聞 記事 目錄 參照)

男子 洋服에 대한 記事들은 流行되는 옷감, 流行色, 流行 스타일의 特色 등을 다루고 있다. 形態의 變化를 다룬 記事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 열이 왕성한데 영향을 바다 양복의 스타일은 신체가 건강한 듯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즉 어깨폭이 넓고 가슴이 버러지고 등줄이 길고 허리도 가늘지 안코 길여지는 좀 길다하게 하여 허리로부터

1) 東亞日報社 編纂 委員會, 「東亞日報社史」 서울: 동아출판사, 1975, pp. 64~65.

전부에 걸치어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도록 합니다”.

금년 流行의 주조는 어디에 있는가 스타일부터 보면 무엇보다도 고상하고 「스마트」한 영국풍의 모양이 압도적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쾌한 중에 자영 침착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그 점이 환영받는 터이며 또한 그것이 환영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記事에서 언급된 男子洋服 上衣는 스프링 코트(Spring coat), 조끼, 저고리(Jacket). 와이샤쓰 등이다.

스프링 코트를 記事에서는 「스프링 오바」라고 하였는데 라그란 소매에 넓은 칼라(Collar)가 달린 다소 몸에 붙는 더블 여밈의 코트라고 表現하였다³⁾. 저고리의 流行에 關하여는 길이가 짧은 것⁴⁾이 流行하다가 어깨폭이 넓고 가슴이 벌어지며 길이가 긴 形態로 流行이 바뀌었다⁵⁾. 또 가슴과 어깨 폭이 훨씬 넓고 칼라(Collar)도 넓어진 스타일이 登場하였다⁶⁾고 쓰고 있다.

조끼에 대하여는 1932년의 記事에서 洋服 저고리 流行이 단추가 높게 달린 理由로 깃이 적게 벌어지고 더불어 없어졌다고 쓴 記事가 있어서 당시 조끼의 形態를 짐작할 수 있다.

와이샤쓰는 저고리와 조끼 안에 입는 上衣 이므로 저고리나 조끼에 調和롭게 입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는 內容이 記事에 나타난다. 1928년의 와이샤쓰 칼라는 스탠드 칼라(Stand collar)가 流行이었다는⁷⁾ 記事와 집에서 와이샤쓰를 만들어 입으면 훨씬 經濟的이라는 記事가 있다⁸⁾.

넥타이는 男子 洋服에 必需的인 品目으로 와이샤

쓰와 더불어 자주 記事化 되었는데 1921년에는 짙은 柳綠이나 짙은 빨간 빛으로 무늬가 넓은 것이 流行하였고⁹⁾ 1928년에는 물빛이나 엷은 차빛의 나비 넥타이가¹⁰⁾ 1933년에는 남색 系統의 긴 넥타이가 流行하였다 한다¹¹⁾.

男子 洋服 바지는 上衣의 流行에 따라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1921년의 통이 좁은 바지가 1932년에 가서는 上衣에 더블 여밈이 流行되자 바지 역시 허리폭이 너긋하게 17~18인치쯤 많고 싱글보다 더블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1934년에 가서는 허리가 잘 돌고 曲線의 躍動이 豊부하며 바지 끝이 스마트하게 가는 것이 流行하였다고 記事에서는 쓰고 있다¹²⁾.

男子 洋服의 流行색을 다룬 記事를 살펴보면

유행색의 기초는 역시 회색계통의 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른 람색이오 그 다음이 갈색계통의 색입니다¹³⁾.

이봄의 流行한 빛은 곤색계통, 회색계통은 언제나 다름없이 기본색으로 되어있고 그 외에 밤빛, 붉은 빛을 띠운 다색의 농한 것이라든가 좀 침착한 푸른빛이나 「실버그린」등이 새로운 맛이 있어...¹⁴⁾

와 같이 회색, 곤색이 기본이 되어있고 그 외에 남색, 자색, 갈색등이 流行하였고 붉은 빛이나 실버그린등도 새로운 색으로 流行하였다.

2) 內 衣

記事들을 살펴보면 1927년 9월 12일자 신문 3면 記事에서 내의는 털옷보다 목면 옷이 衛生에 좋다고 쓰면서 木綿 內衣가 땀 발산이 잘되고 羊毛 內衣

1) “32년 유행”, 「동아일보」, 1932. 1. 27, p. 4.

2) “신사복, 고상하고도 스마트한 영국식이 압도적”, 「동아일보」, 1934. 2. 22, p. 6.

3) “34년 봄이 가져올 유행”, 「동아일보」, 1934. 2. 22, p. 6. 2) 「동아일보」, 1921. 3. 12, p. 3.

4) “금년의 유행양복”, 「동아일보」, 1921. 3. 12, p. 3.

5) “34년 봄이 가져올 유행”, 「동아일보」, 1934. 2. 22, p. 6.

6) “너름 와이샤쓰”, 「동아일보」, 1928. 8. 1, p. 3.

7) “와이샤쓰 가령에서 만들면 완전히 싸게된다”, 「동아일보」, 1928. 11. 21, p. 3.

8) “신춘을 仰하는 도회인의 신준비”, 「동아일보」, 1921. 3. 12, p. 4.

9) “너름 와이샤쓰”, 「동아일보」, 1928. 8. 1, p. 3.

10) “금년 겨울 양복은 갈색이 대유행”, 「동아일보」, 1933. 11. 10, p. 6.

11) “신춘을 仰하는 도회인의 신준비”, 「동아일보」, 1921. 3. 12, p. 3.

13) “금년의 봄 양복은”, 「동아일보」, 1932. 1. 27, p. 4.

14) “34년 봄이 가져올 유행”, 「동아일보」, 1934. 2. 22, p. 6.

에 비해 쌀 뿐더러 빨래도 자주 할 수 있어 좋다고 쓰고 있다. 또한 좋은 무명 메리야스를 選擇하는 基準은 실이 가늘고 안털이 유하여 윤기가 있는 것"이라는 記事도 보인다. 여기에서 留意할 것은 메리야스 조직에 대해 言及 하면서 그 손질법에 대해 쓰고 있는 점이다. 메리야스 內衣가 織物이 아닌 編物이므로 以前의 衣服材料의 손질과는 다른 손질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新聞에서 이의 使用法과 管理 요령등을 記事化해 주어서 讀者들이 당할 수 있는 問題들을 豫防, 해결할 수 있다 하겠다.

(2) 女子 衣服

女子 衣服은 洋服, 韓服으로 나뉘어 記事化 되었고 女子 韓服의 경우 그 形態의 改良에 대한 論議가 많았다.

1) 洋 服

女子 洋服에 대한 記事는 女子 洋服의 着用을 주장하는 記事와 洋服의 形態 및 色의 變化를 報道하고 있다.

1931년 6월 24일에서 7월 7일 까지 9회에 걸쳐 "婦人과 洋服"이라는 題目의 記事가 宋 今旋의 執筆로 連載되면서 洋服이 女子 衣服에 受容되었음을 보여주었다.

宋 今旋은 그의 글을 통해 女子들이 洋服을 着用해야 하는 必要性和 5가지로 나누어 說明하였다.

첫째, 物資 經濟上의 이유로 洋服은 內衣가 적으므로 朝鮮 옷 한 벌감으로 洋服 두 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時間的 經濟上으로 洗濯, 손질에 드는 時間을 節約할 수 있고 韓服의 빨래나 손질에 드는 時間만큼을 節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事務 能率上 人體 構造를 束縛하지 않으므로 일하기에 훨씬 편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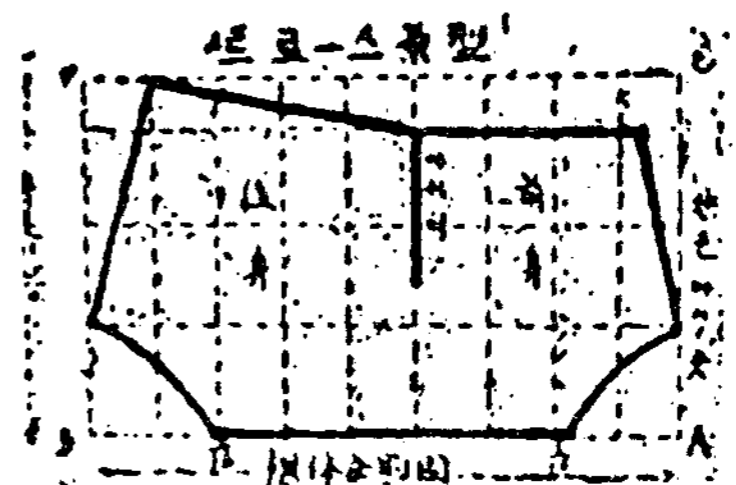
넷째, 外觀上 變化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韓服의 形態에 비해 洋服은 多樣하게 디자인의 變化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衛生上 몸을 結縛하지 않으며 만들기가 쉽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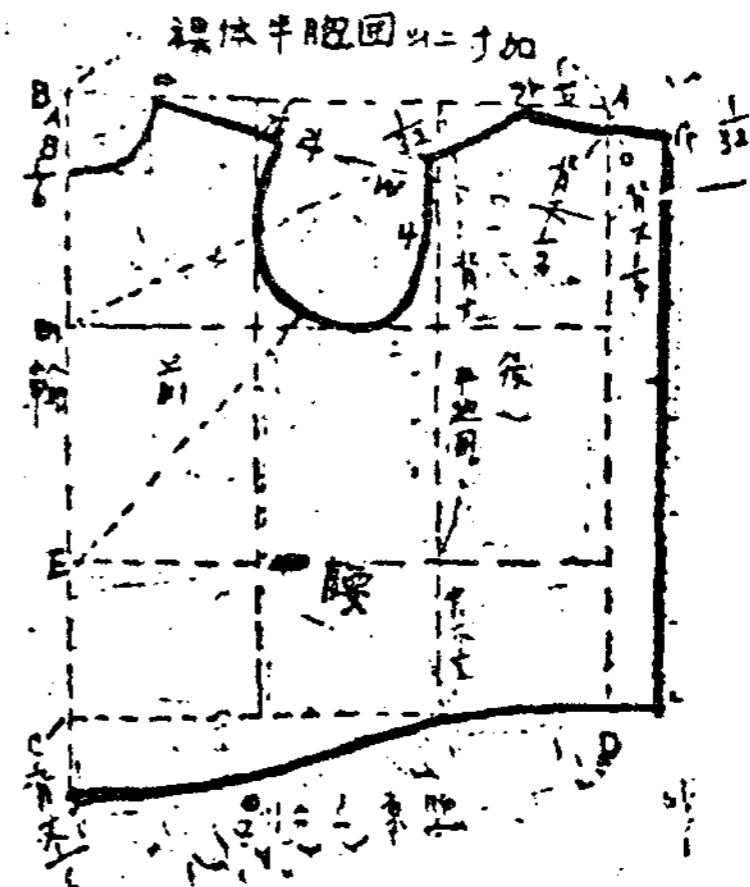
記事 全般에 걸쳐 宋 今旋은 洋服의 技能性을 取할 것을 強調하였는데 女子 洋服 原形을 畫報로 提示하여 家庭에서 製作할 수 있게끔 하였다.

년령	선치머울		나이표준치수(가림)
	중위	경위	
2세	46.0	1.211	
4	48.0	1.267	
6	51.0	1.334	
8	54.0	1.424	
10	57.6	1.520	
12	61.2	1.616	
14	67.0	1.768	
16	71.0	1.936	
어른	77.0	2.145	

<그림 1> 女兒 표준치수
1931년 6월 29일



<그림 2> 프로스 원형²⁾
1931년 6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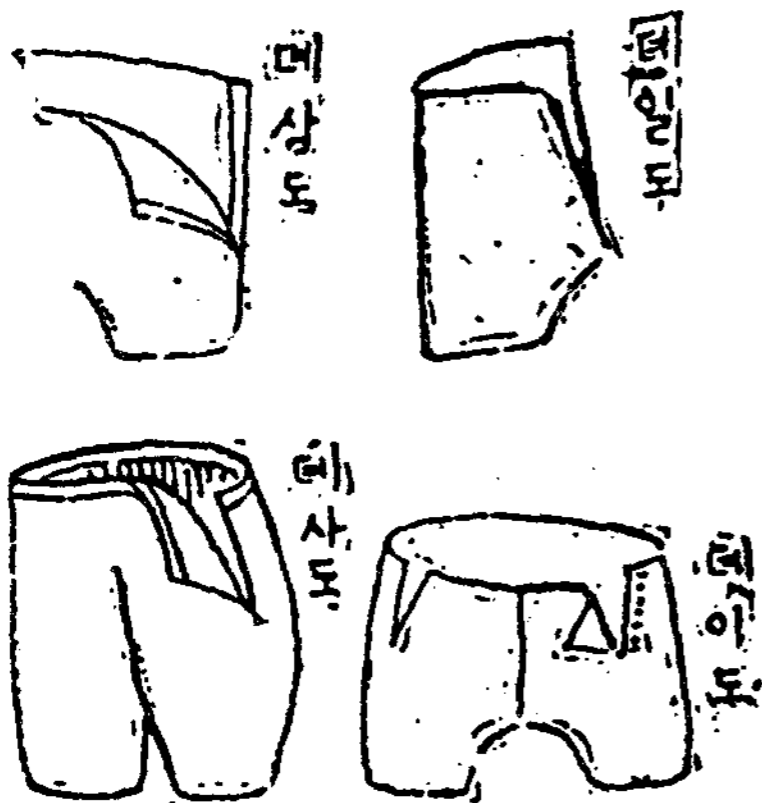
<그림 3> 女子洋服 원형
1931년 6월 28일

1) "무명 메리야스 속옷은 어떤것을 선택할까?", 「동아일보」, 1927. 12. 3, p. 3.

1) drawers를 指稱함.



<그림 4> 유아용 드로잉스 원형
1931년 6월 28일



<그림 5> 드로잉스 제작도
1931년 6월 28일

또한 “만들어 파는 부인 양복 살 때의 주의점”¹⁾으로 가슴과 어깨가 잘 맞는지 확인할 것을 쓰고

있고, 양복을 싸게 짓는 법, 섬유를 보고 감을 고르는 법²⁾ 등의 기사도 실어 洋服을 고를 때의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女子 洋服의 形態 變化에 대해 다룬 記事로는 1932년에 짧은 스카-트가 流行한다는³⁾ 記事가 있다.

여자의 스카트는 한 때는 날마다 짧아져서 정쟁이로 무릅으로 넘적다리로 자꾸 올라만 갖지마는 유행이란 바다의 밀물과 가타. ...금년의 유행은 또다시 짧은 것이 유행이 되리라는 의견이 첨단 여성사이에 일어난 모양이다. ...긴 스카트가 확명한 때는 잊지마는 비에 잘 젖고 흙물이 잘 튀는 것만은 그대로 참을 수 없는 일이고들 생각하는 모양이오. 또 긴 스카트는 불편하니 차라리 짧은 것이 조타고 다시 짧은 스카트 레찬이 여기저기서 일어 납니다.

1934년에 들어서면서 “모가지가 웃속 올라간”⁴⁾ 옷이 流行한다는 내용과 婦人洋服의 가을 流行 스타일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보인다⁵⁾.

流行색을 보면 1934년도에 「모브」 「블루」 「오리브」 「마룬」 등의 색이 流行하리라고 예상한바 있고 1934년 가을부터 1935년 봄까지 자주가 流行⁶⁾ 하였으며 부인용 세타⁷⁾도 자갈색이 流行하였다고 한다.

2) 韓 服

韓服에 관한 記事는 衣服 形態의 流行에 대한 것보다 衣服 材料의 사치스러운 傾向에 대한 記事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衣服 材料의 變化를 重要視 하였음을 알 수 있다.

韓服의 流行色 變化에 대해 알아보면 1925년 여름에는 옥색, 백색, 연분홍의 엷은색이⁹⁾ 流行하였고 1935년 봄에 자색이 流行하였다는¹⁰⁾ 記事가 나타

1) “만들어 파는 부인 양복 살때”, 「동아일보」, 1931. 8. 8, p. 4.
 2) “감을 사주고 재봉만 시키면 양복이 훨씬 싸게 든다”, 「동아일보」, 1931. 1. 28, p. 4.
 3) 또다시 유행한다. 짧은 스-카트”, 「동아일보」, 1932. 1. 26, p. 4.
 4) “봄의 뉴-패션 새로 유행하는 스커-트”, 「동아일보」, 1934. 1. 30, p. 6.
 5) “부인 양복 새 가을의 유행 스타일”, 「동아일보」, 1934. 8. 22, p. 6.
 6) “부인 양복 새 가을의 유행 스타일”, 「동아일보」, 1934. 8. 22, p. 6.
 7) “금년의 유행(一)”, 「동아일보」, 1935. 10. 9, p. 4.
 8) “금년의 유행(二)”, 「동아일보」, 1935. 10. 11, p. 4.
 9) “경성 여자사회의 유행과 사치의 증중”, 「동아일보」, 1925. 8. 8, p. 2.
 10) “봄 따러 변하는 조선 의복감”, 「동아일보」, 1935. 3. 6, p. 4.

난다. 1935년 가을에 柳綠과 자주가 전성을 이룬다는 記事도 있다¹⁾.

3) 韓服 改良

女子 韓服은 저고리 길이가 짧아서 치마를 가슴에서 동여야 하는데 이 가슴여밈이 腰部를 束縛하여 各種 疾患의 原因이 되자 이를 改良하자는 論議가 생겨나게 되었다.

당시 新聞紙上에 女子 韓服 改良에 관한 記事가 실렸다.

...의복의 허리도 가슴을 동이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여러가지 병의 원인을 짓는다 합니다. 첫째 허파의 수축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여 호흡기의 병이 생기기 쉽고 또한 가슴동이는 까닭으로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肺尖答兒라 합니다. 「우리 나라 여자를 진찰하여 보면 다수는 폐첨가답아가 있다 함」 또한 늑막염의 원인도 흔히 가슴 동이는데 있고 심장에도 해가 있다 합니다. 그런고로 하루바삐 이 가슴 동이는 것 면하는 무슨 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리학 상으로 연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성 우리가 서로 보기에 우리 체격이 다르지 못한 여자가 많고 가슴이 발달되지 못하여 허리가 굽고 키가 작은 여자가 많습니다...

와 같이 韓服이 가슴여밈이 肺 疾患의 原因이 된다는 內容도 보인다.

1921년 4월에는 계명구락부가 實用的인 改良 衣服을 研究하고 있다 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조선 여자의 의복은 가슴을 단단히 매임으로 위생에나 보기에나 여러가지로 폐해가 많음으로 이를 개량하기 위하여 이번에 계명 구락부에서 前記와 같은 폐해를 없이하고 실용에 적당하도록 개량하과 하여 연구위원을 두어 열심으로 연구중이라는데 일반 社會에서도 이에 동감이 있는 이는 연구할 재료를 많이 제공하기를 바란다더라²⁾.

또, “의복제도 개량은 먼저 가슴을 매지 않도록

주의하여 개량함이 조홀듯 하다.”³⁾라는 題目으로 女子 韓服의 乳房 解放이 무엇보다 重要한 問題임을 強調하는 記事가 있다.

조선 여자는 전부 아래 옷은 가슴에다 단단히 매어 입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입학 시험때마다 체격검사를 하는 것을 보아도 가슴이 넓은 사람 제일 건강한 사람으로 치는 오늘날부터 가슴—아무쪼록 넓어져 문에 유익할 가슴을 꼭꼭 매어서 다시는 더 넓어질 수가 없이 세네벌의 옷을 단단히 동여매니 실로 우리 부인의 의복제도의 폐점과 개량할 점은 「어지하든지 가슴을 풀어놓자」하는데 있을 줄 압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옷을 가슴에다 전부 동여 매고는 남자의 재롱거리 노릇이나 하는 여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자도 또한 활동을 하여 보겠다 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가지 불편한 일이 많을 줄 압니다...⁴⁾

한참 무려 고이는 것이라도 으레히 꼭꼭 싸가지고 잡아매니까 유종이 많다는 어느 의사의 한탄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의복제도에서는 단순히 「저사람의 몸뚱이에다가 새로이 옷을 장만하여 입히려 한다면 누구든지 무어깨는 걸기에 편하고 잘룩한 허리에는 매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날 것이라 합니다. 그러하므로 이제 새로이 발명 혹은 개량코자 하는 의복은 반드시 어깨에는 걸고 허리에는 두른다 하는 原則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이외다. 그러므로 나의 의견에는 목하 병원의 간호부의 의복제도는 실로 사람의 몸에 적합한 의복이라 합니다. 그러나 의복—더우기 부인의 의복은 實用 方面 뿐이 아니라 특히 보기에 좋은 것도 생각지 않을 수 없으니까 더욱 신중히 생각하여 볼일이라 합니다. ...중략... 두루마기로 말할지라도 그것을 예복이라야 할지 통상복이라야 할지 큰 의문이며 만일 그것이 완전한 예복이 아니요 통상복이라 하면 매우 개량점이 많습니다. 대체 두루마기는 항상 몸에 휘휘감기고 조금만 몸을 굽히기만 하면 앞자락이 땅에 끌리어서...

이와 같이 社會 各界에서 女子 韓服 改良의 必要性을 披瀝하는 의견들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1921년 9월 10일 부터 9월 14일 까지 連載되었던 金元周의 ‘부인의 복지개량에 대하여’라는 記事와 1921년 9월 28일 부터 10월 1일 까지 連載되었던

3) “금년의 유행(一)”, 「동아일보」, 1935. 10. 9, p. 4.

1) 김 원주, “부인의 복지개량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1. 9. 11, p. 3.

2) “부녀 의복을 개량, 계명 구락부의 새연구”, 「동아일보」, 1921. 4. 5, p. 3.

3) “의복 제도 개량”, 「동아일보」, 1921. 4. 11, p. 3.

羅惠錫의 '김원주 형의 의견에 대하여'라는 記事를 통해 韓服改良에 대한 本格的인 論議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金元周는 그의 글을 통해 衣服은 衛生, 禮義, 아름다움의 3가지 要素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婦女子들의 衣服이 胸部를 束縛하여 이에 따른 被害가 크다고 指摘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乳房을 解放하자고 主張하였다.

金元周가 내놓은 改良策은

- 첫째, 치마 말기는 어깨옷으로 대신할 것
 - 둘째, 윗도리 길이를 8寸 정도로 늘릴 것
 - 셋째, 치마는 적삼위로 올려 입는 형태로 할 것
 - 넷째, 직물은 검박한 재질과 빛을 고를 것
- 등이며 그런 가운데 朝鮮的인 것을 잊지 말자고 主張하였다.

羅惠錫은 이에 대하여 金元周의 意見이 一見 맞다고 同意하면서 金元周가 改良策으로 提示한 衣服 形態가 일부러 朝鮮的인 特色있는 모양을 모두 뜯어고쳐 西洋옷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指摘하였다.

羅惠錫이 主張한 改良案은

- 첫째, 衣服의 形態는 韓服 特有의 것을 살리되 주머니를 만들어 달거나 어깨허리로 치마걸이를 달아 부분 수정을 할 것
 - 둘째, 衣服의 色을 우리 固有의 原色을 使用할 것
- 등이다.

이들의 紙上 討論 內容을 살펴보면 當時 女性 韓服의 가장 큰 問題點인 乳房 解放 問題를 어깨허리를 달아입고 저고리 길이는 以前보다 약간 길게 하여 가슴을 죄지 않도록 하여 解決하려 하였음을 共通的으로 볼 수 있다. 女子 韓服의 改良은 各界의 多樣한 要求를 모두 充足시킬 수 있는 滿足한 合一點을 찾기까지는 많은 時間과 努力이 必要하였고 韓服은 民族 服飾이므로 비록 커다란 變化가 아니더라도 치마허리를 단다든가 저고리 기장에 小幅的인 變化가 생긴 것 만으로도 意味있다 하겠다.

女子 韓服 形態 改良에 대한 記事는 1921년도 以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時期 동안에 韓服 形態 改良이 어느 정도 實效를 거두었기 때문으로

分析할 수 있다.

(3) 兒童服

1) 外 衣

1920년대 後半 부터 外衣에 漸次 洋服이 受容되어 감에 따라 兒童服 역시 洋服으로 짓는 方法을 紹介하는 記事가 보인다¹⁾. (그림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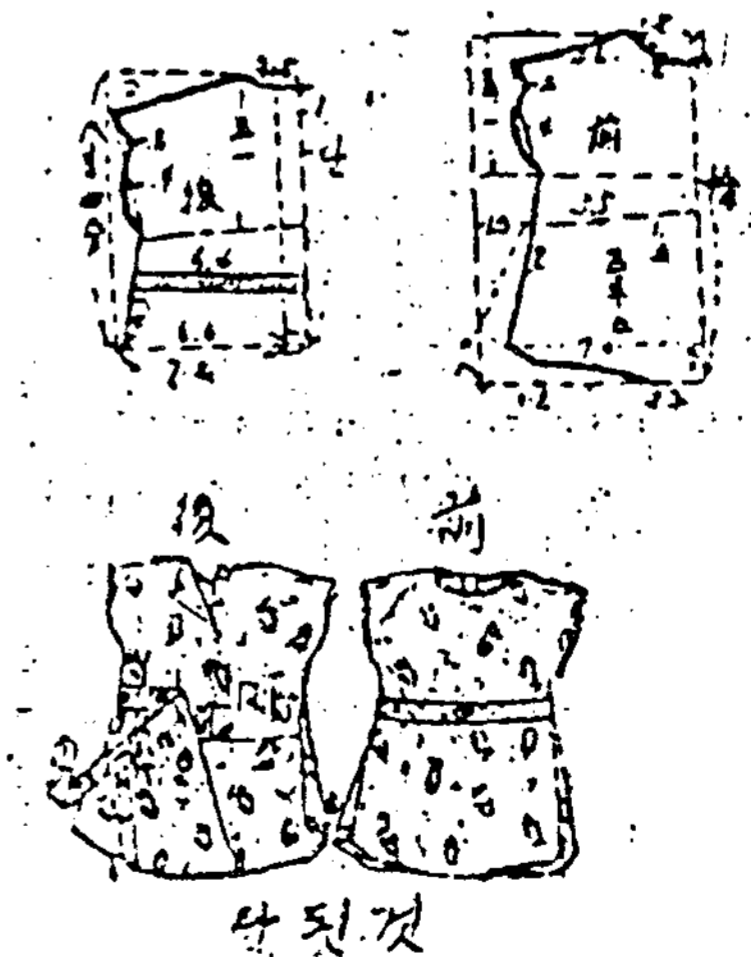
兒童服은 育兒와 密接한 關係가 있으므로 成人의 衣服 流行과 조금 다른 점이 나타난다. 즉, 衣服을 통한 社會化가 必要한 時期이므로 流行과 實用性에 더하여 教育性을 띤 記事들이 많다. 1926년 2월 10일자 5면 記事에서 어린아이의 옷을 비단과 같이 豪華스러운 材料로 짓는 것은 어린아이의 精神 教育에 좋지 못하다고 쓰고 있는 것도 같은 理由이다.

빨기 좋고 모양 좋고²⁾ 活動하기 便하게 만들어 衣服의 衛生的인 면과 技能的인 면을 強調하는 것이 兒童服을 다룬 記事들의 共通點이다.

2) 內 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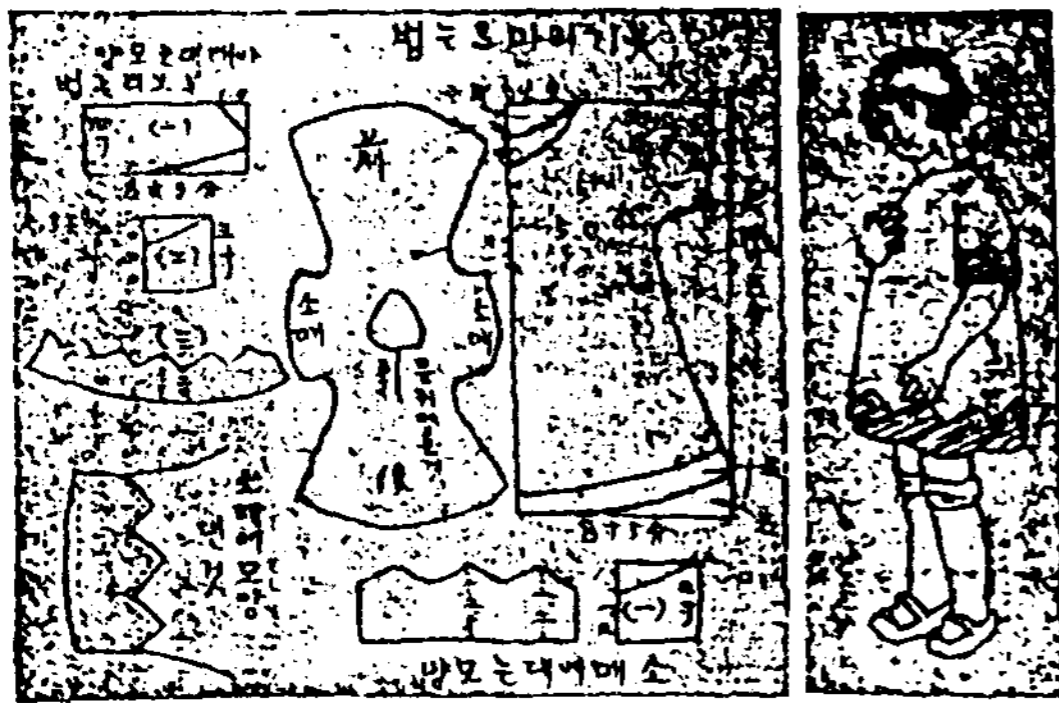
兒童服에서 內衣는 衛生的인 면과 機能性은 外衣에 비해 결코 소홀히 다루지 못할 部分이다. 1927년 12월 11일에서 12월 13일 까지 "따뜻하고 편한 애기 입힐 속옷들"이라는 題目으로 連載된 記事에서는 兒童 內衣가 무겁지 않고 活動에 障礙를 주지

(二) 스파론



<그림 6> 스파론 제작도
1927년 8월 7일자

1) "여름철 여아들의 양복은 어떻게 지어야 맵시있게 지을까?", 「동아일보」, 1927. 8. 7, p. 3.
2) "봄 따러 변하는 부인 아동복", 「동아일보」, 1935. 3. 4, p. 4.



〈그림 7〉 兒童服 원피스 마르기
1927년 8월 7일자

않으면서 따뜻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 記事에서 또 속옷의 畫報를 提示하여 집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兒童 內衣의 形態를 提示해주었다.(그림 8, 9)



〈그림 8〉 아기 속옷
1927년 12월 11일 3면 畫報



〈그림 9〉 아기 속옷
1927년 12월 13일 3면 畫報

2. 衣服 材料

衣服 材料를 다룬 記事는 모두 16件이다.(附錄 I. 主題別 新聞 記事 目錄 參照)

이 時期의 衣服 材料는 크게 韓服감과 洋服감으로 나눌 수 있다.

韓服에 쓰인 衣服 材料는 倭紗, 羅倭紗, 唐항라, 한산모시, 공주춘포, 안동포, 숙고사, 국사, 광성관자, 眞珠紗, 花生紗, 생노방, 蘭紗, 음우견 등 이었다.

국사(上)일원 이십전(中)일원 십전(下)일원 인데 저고리는 석자 가웃이면 한감이 되어 치마는 세폭이면 일곱자 네폭이면 아홉자가 들겠고 숙고사도 또한 일홉과 종류만 다르다 뿐이지 값이라든가 폭은 국사와 같다. 관사는 유문관사, 무문관사가 있다¹⁾.

제작년까지는 唐亢羅나 倭紗 같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치품을 많이 입었으나 어떤일인지 조선소산의 韓山모시를 많이 입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사람이 일반적으로 조선소산을 많이 입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으리와 한산모시는 감시 그렇게 비싸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기에 매우 질박하고 검소하여 보이기 때문이기 때문인 듯 하다. 하루해기 일년같이 긴 첫 여름날에 안방아씨 건너방 침모의 바느질고리를 바르게 할 옷감의 시세를 들어 보건데 ...後略...²⁾

洋服에는 린넨, 아루싸가(알파카), 사아지, 스코취, 바바립텍크, 슛드랜드, 홈스판, 포-라 등이 쓰였으며 마포나 고구라(小倉), 우스테드, 모스코취 등도 쓰였다 한다.

1921년에는 린넨, 아루싸가(알파카) 등이 流行하였고³⁾ 1931년 12월 8일자 4단 記事에는 事務服, 運動服으로 비싼 사-지 대신 스코취를 쓰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실렸다. 또한 1934년에는 손의 觸感이 좀 거친 「바바립텍크」 觸感이 부드러운 「스드랜드」 스포츠, 施行用으로 「홈스판」등이 流行하였다고 한다⁴⁾. 이 외에도 여름 洋服감에 알파카, 포-라, 마포, 고구라(小倉)⁵⁾ 등이 쓰였다 한다.

- 1) "신춘을 仰하는 도회인의 신준비", 「동아일보」, 1921. 3. 21, p. 3.
- 2) "夏衣는 조선 소산으로", 「동아일보」, 1922. 5. 26, p. 3.
- 3) "今夏의 流行", 「동아일보」, 1921. 5. 4, p. 3.
- 4) "34년 봄이 가져올 유행", 「동아일보」, 1934. 2. 22, p. 6.
- 5) "집에서 끝 되는 여름 양복 세탁법(一)", 「동아일보」, 1927. 6. 27, p. 3.

메리야쓰 織物에 대한 記事로는 1932년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3회에 걸쳐 毛絲編物の 市勢와

사는 法을 連載하였고 同年 12월에는 編物 講習會를 開催하였다는 記事가 있다¹⁾.(그림 10)



〈그림 10〉 編物講習會의 毛絲編物 見本
1932년 12월

3. 衣服 管理

衣服 管理에 關한 記事는 30件으로 그中 洋服의 洗濯法에 대한 것이 13件으로 가장 많고 철이 지난 衣服의 保管法이 12件 被服 衛生에 關한 것이 3件 洋服 修繕에 關한 것이 2件 其他가 10件이다.(부록 I. 主題別 新聞記事 目錄 참조)

洋服의 洗濯法에 關한 記事들은 옷에 묻은 때나 얼룩을 빼는 法을 많이 쓰고 있다. 1927년 6월 27일 부터 6월 30일 까지 4회에 걸쳐 連載된 “집에서 곧 되는 여름 洋服 洗濯法”에서는 땀이 묻었을 경우 곧 세탁을 할 것, 잉크, 먹, 땀, 흙 등의 汚染이 묻었을 경우 纖維의 구별을 먼저 한 後 각 얼룩에 適切한 藥品과 洗濯法을 써서 汚染을 除去할 것을 쓰고 있다.

1927년 12월 7일 부터 12월 9일까지는 “가정에서

알아들 새로운 세탁법”이라는 連載 記事를 통해 洗濯에 適當한 물의 選擇法과 種類에 따라 다른 洗濯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內容을 살펴보면

...물로 세탁을 하려면 조흔 물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먹는 물 외에 세탁하는 물은 아모 물이나 다 조흔줄 압니다마는 그는 큰 오해입니다 ...그럼으로 세탁물은 단물이라야 합니다. 만일 경수 즉 악질의 물이면 걸러서 빨던지 또는 오래오래동안 갈아 안치어서 쓰는 것이 가장 좃습니다...²⁾

...세탁물 중에는 절대로 비벼빨아시는 아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즉 모직물과 모사편물등입니다. 이런것은 결코 비벼빨지 말고 흔들어 빨아야 합니다...³⁾

- 1) “따뜻하고 편한 애기 입힐 속옷들”, 「동아일보」, 1927. 12. 11, p. 3.
- 2) “가정에서 알아들 새로운 세탁법(一)”, 「동아일보」, 1927. 12. 7, p. 3.
- 3) “가정에서 알아들 새로운 세탁법(二)”, 「동아일보」, 1927. 12. 8, p. 3.

...백색 명주 등속을 빨 때에는 일호(一號) 비누를 사다가 싹겨서 남비나 세수대야에 너흔후 쓸려서 비누가 다 풀어지거든 그것에 빨내를 넣고 불을 조금씩 때면서 살문 다음 편편한 자리에다 펼쳐놓고 비단 빠는 솔로 빨면 깨끗하게 됩니다...¹⁾

와 같이 詳細하게 洗濯 方法을 적어주고 있다.

이외에도 “의복에 묻은 각종 오염 빠는 법”²⁾ “먹이나 잉크가 묻을 때에는”³⁾처럼 部分 汚染을 除去하는 法을 쓴 記事들이 있다.

철 지난 衣服의 保管法을 다룬 記事들은 季節과 衣服 材料에 따라 다르지만 바람을 잘 쐬어서 넣을 것⁴⁾ 잠깐 입었던 옷이라도 그대로 넣지 않도록 할 것⁵⁾, 毛織 洋服의 경우 휘발유로 때를 빼어서 나프탈린, 장뇌 등을 넣어 保管 할 것⁶⁾ 등 重要하지만 잊기 쉬운 衣服 保管法에 대해 쓰고 있다. 또한 毛皮類의 保管法에 대한 記事들도 보이는데 1928년 6월 18일자 3면 記事에서는

...우선 한번 벗에 잘 말린 후 몬지를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몬지속에는 만흔 미생물들이 있기때문입니다. 또 사용하는 동안에 기름이 무더서 잇는 것 임으로 그것을 또한번 잘 땀니다. 그 다음에는 너어 둡니다...

라고 쓰면서 毛皮, 毛物類에는 濕氣가 무엇보다 禁物임을 強調 하고 있다. 毛皮類의 保管에 대한 記事는 1935년 3월 6일자 4면 記事에 다시한번 掲載 된다.

洋服의 修繕에 關한 記事는 1927년 9월 11일, 12일자 記事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양복의 수선 법”을 題目으로 하여 나온다. 여기에는 옷에 구멍이 났을 경우 그 구멍의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 기우는 方法을 쓰고 있다. 구멍이 작을 경우 제감의 실을 뽑아 가로 세로로 엮어서 메우고 구멍이 큰 경우 구멍보다 3배 가량 큰 제 감으로 겹에서 가로 세로

로 엮어 준다고 한다.

衣服 管理 記事들의 一般的인 特徵은 當時로서는 受容 段階에 있었던 洋服의 洗濯法과 保管法을 主로 다루고 있다는 點이다. 독자들은 韓服과 같이 뜯어서 빨고, 풀먹이고, 다듬고 하는 洗濯 過程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洋服 손질에는 以前보다 몇 배나 많은 注意를 기울여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問題들을 新聞을 통하여 啓蒙하고 讀者들로 하여금 잘못된 衣服 管理法을 바로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相異한 二物質文化가 共存했던 時代인 만큼 사소한 部分에서의 變化에 까지 새로운 知識의 教育이 必要했고 新聞이 이러한 知識을 傳達해 주는 技能을 遂行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 2~3회씩 連載의 形式으로 記事化 되는 것 역시 衣服 管理記事의 特徵이다.

4. 머리 모양

머리 모양에 關한 記事는 모두 32件이다.(附錄 I. 主題別 新聞 記事 目錄 參照)

머리 모양에 關한 記事는 男·女의 구분이 뚜렷하여 男子의 경우 斷髮, 女子의 경우 斷髮을 비롯한 머리모양의 變化에 대해 쓰고 있다.

첫째, 男子의 斷髮은 色衣 着用과 더불어 斷髮의 獎勵가 있었다. 男子 斷髮 記事는 14件으로 色衣 獎勵 記事와 항상 함께 다루어졌다. 1933년 12월 30일자 3면 記事에서는 함양군의 斷髮率이 9.8%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1934년 3월 6일자에서는 釜山의 斷髮率이 9%였다고 쓰고 있다.

斷髮에 대한 記事에서는 머리 모양에 대한 言及이 없었고 단지 1930년에 男子와 小兒의 삭발이 장발의 「반짝」으로 점차 實用化 되고 있다고 하는 記事를 볼 수 있다.⁷⁾

둘째, 女子 머리에 대한 記事들은 18件으로 國內外에서 流行하는 머리 모양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

1) “가정에서 알아들 새로운 세탁법(二)”, 「동아일보」, 1927. 12. 8, p. 3.
 2) “의복에 묻은 각종 오염 빠는 법”, 「동아일보」, 1927. 12. 22, p. 3.
 3) “먹이나 잉크가 묻을 때에는”, 「동아일보」, 1932. 3. 26, p. 4.
 4) “너름 양복과 옷의 간주하는 법”, 「동아일보」, 1928. 9. 27, p. 3.
 5) “너름 양복을 잘 만져 노홀 때”, 「동아일보」, 1929. 9. 12, p. 3.
 6) “남자의 겨울 양복 정리는 이러케”, 「동아일보」, 1932. 4. 26, p. 5.
 7) “苧布가 양속으로”, 「동아일보」, 1930. 4. 3, p. 3.

1920년대 初에는 야소교인, 천도교인들이 쪽을 찼다든가¹⁾ 편발이 북계로 바뀌었다든가²⁾ 하는 식의 내용들이고 1920년대 後半部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西洋의 長髮 流行에 따른 쪽머리 流行 記事들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當時 머리 모양의 流行에 外國 女俳優들의 머리 모양이 큰 影響을 준 것으로 解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非 단발이 신류행 : 단발이 극도로 流行하고 난 뒤엔 당발이 다시 신류행으로³⁾

단발의 원조 「스웬슨」양의 장발 주장과 쪽진 머리 流行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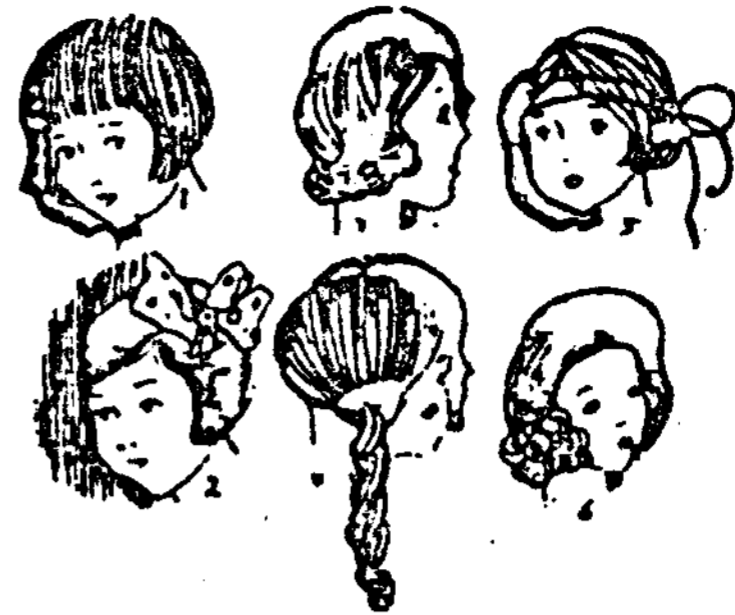
의 記事에서 當時 外國에서는 短髮의 流行이 끝나고 새로이 長髮이 流行하기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퍼머 머리(Permanent wave)에 대한 記事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거슬린 머리가 류행은 류행이나 머리털엔 덜 좋다”고 써서 당시에 퍼머 머리가 流行이었음과 머리손질에 대해 쓰고 있다⁵⁾.



<그림 11> 1933년 流行 스타일

그림 11은 1933년에 流行하였던 短髮과 퍼머 머리 畫報이며 그림 12에서는 女兒에게 어울리는 머리 모양을 畫報에 실은 것이다.



<그림 12> 어린이 머리모양
1927년 9월 28일

5. 化粧 및 美容

化粧에 關係되는 記事는 38件으로 基礎 化粧에 대한 記事가 29件, 化粧을 통한 校訂 및 成形 手術에 關한 記事가 6件, 色調 化粧이 5件, 其他 8件 등이다.(附錄 I. 主題別 新聞 記事 目錄 參照)

化粧은 머리 모양과 마찬가지로 쉽고 多樣하게 變化를 줄 수 있는 特徵이 있으므로 세련되고 華奢한 化粧術을 다룬 記事들을 많이 볼 수 있다.

基礎 化粧에 대한 記事중 代表的인 것은 吳元錫과 金尼洙의 글을 실은 것이다.

吳元錫은 그의 글 가운데에서 日光이 피부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 쓰고 있는데

...적당한 분량의 피부를 약간 자극하여 그 혈액 공급을 량호케 함으로 그 결과 얼굴빛이 선명하고 붉어 참된 건강미를 나타내게 합니다. 너무 자조 혹은 너무 오랫동안 햇빛을 쬐이면 피부가 타서 저속이 갈색을 띄우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잘 아는 사실인바...⁶⁾

적당한 햇빛이 피부 미용에 좋다고 쓰면서 嚮學的인 立場에서의 피부 衛生에 대해 말하고있다.

반면 金尼洙는 化粧과 美容을 關聯시킨 立場에서 글을 敍述하고 있다. 그는 글을 통해 남에게 不愉快함을 느끼지 않게 하도록하는 化粧의 概念을

1) “안주군 신류행, 여자들이 쪽을 찼”, 「동아일보」, 1920. 9. 1, p. 3.

2) “부인계의 교풍성적”, 「동아일보」, 1924. 12. 29, p. 1.

3) “非 단발이 신류행”, 「동아일보」, 1926. 2. 9, p. 5.

4) “단발은 시대遞 쪽진 머리 유행”, 「동아일보」, 1927. 6. 12, p. 3.

5) “거슬린 머리, 류행은 류행이나 머리털엔 덜 좋다”, 「동아일보」, 1931. 11. 26, p. 4.

6) 吳元錫, “누구나 명심해 두어야 할 미용과 피부위생”, 「동아일보」, 1930. 11. 27, p. 5.

說明하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化粧品은 피부에 티를 만들고 刺戟性 飲食은 얼굴을 검게 한다는 것과 鉛毒의 침해가 피부에 가장 무섭다는 점을 強調했다. 또한 가장 바람직한 化粧品은 年齡과 피부에 맞는 化粧品을 選擇하여 자신의 品位를 살리는 化粧品이라고 쓰고 있다.

첫째 남에게 불유쾌함을 늦기지 않게 하도록 할 것이며 그 다음은 자기의 品位를 보존하고 또는 위생에 적당케 해야 하는 것이므로 화장은 부인의 의무라 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리치가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美를 조화하는 靈長이며 아름다운 우에 아름다운 것을 더하고 저하는 것은 인정의 소망입니다. 딸하서 오늘날 화장품은 인체에 대단한 유택을 공급하는 原料인 고로 일상 생활에라도 업수 업는 물건입니다. 歐美各國 부인들은 자기집에서 자기 손으로 제조하여 사용함으로 자기의 피부에 적당하고 춘하추동 절기에 맞도록 제조하여 쓰는 고로 그들은 천연미를 늦지 않도록 보존하여 비상한 好感을 줍니다¹⁾.

얼굴의 缺點을 化粧品을 통해 補完할 수 있는 化粧品法으로는 검붉은 얼굴을 희게 하는 美容法을 쓴 記事가 있는데 內容은

동양사람의 얼굴은 일반적으로 누르고 검은 편입니다. 얼굴이 뛰어나게 흰 이도 있지만은 아모리 희다 하여도 누른빛이 도는 것은 황인종의 특색인가 합니다... 얼굴이 좀 검은 분은 빛이 흰 분은 쓰지 말고 노르스름한 분을 발르십시오 그로면 검은 얼굴에 조화가 잘 됩니다... 얼굴이 붉은 이는 상도에서 파는 향내가 나는 강한비누를 될수 있는대로 쓰지 말고 팻비누나 밤비누를 곱게 갈아서 고흔 헌겉에 너서 문지를 것입니다... 분을 덧겹게 바를수록 붉은 빛은 남의 눈에 더 띄웁니다. 연지가튼것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합니다.²⁾

와 같다. “얼굴을 길게도 짧게도 할 수 있는 화장”

¹⁾ “죽은개의 원인 예방 및 고치는 법”³⁾ 등이 있고 1927년 2월 25일 부터 2월 27일 까지 3회에 걸쳐 “보기 흉한 눈을 아름답게 하는 법”이라는 題目으로 눈의 成形에 대한 記事가 連載 되었다. 여기에서는 외거풀은 쌍거풀로, 적은 눈을 크게하는 수술과 처진눈, 올라간 눈, 눈두덩이가 수북한 눈, 눈두덩이가 꺼진눈, 사팔뜨기, 모듈뜨기를 곱게 고치는 手術, 흠이 있거나 알배긴 눈을 고치는 법 등, 눈 成形에 관한 한 거의 모든 方法의 手術에 대해 敘述하고 있다.

色調 化粧品에 대한 記事는 5件으로 주로 時間과 場所에 맞게 化粧品하는 법⁵⁾, 눈썹, 입술 등에 部分的으로 化粧品을 하는 법⁶⁾ 등에 대해 敘述하고 있다.

化粧品을 다룬 記事들을 보면 그 當時에도 化粧品이나 美容에 대한 關心이 높았고 특히 피부 美容에 대해 關心이 높았음을 볼 수 있다⁸⁾.

6. 衣服 附屬品

여기에서 衣服 附屬品이라 일컫는 것들은 洋傘, 帽子, 구두, 핸드백, 손수건, 장갑, 목도리, 향수 등과 같이 衣服과 항상 함께하는 악세사리류를 말하는 것이다. 衣服 附屬品을 다룬 記事는 모두 15件이지만 다른 어느 品目 보다도 流行의 變化를 敏感하게 보여준다 하겠다.(附錄 I. 主題別 新聞 記事 目錄 參照)

(1) 洋傘

1921년 3월 12일자 3면 記事에서 그 해에 재회색과 검은 색이 流行하였다고 한다. 재회색은 婦人用, 검은 색은 女學生과 妓生이 많이 찾는데 妓生의 경우 찬란하게 무늬나 수를 놓은 것이 틀리다고 한다.

재회색은 여염부인네가 많이 찾고 검은 빛은 여학생

- 1) 金 尼 洙, “겨울철에 알아 둘 미용과 화장품”, 「동아일보」, 1930. 11. 29, p. 3.
- 2) 오 연주, “검붉은 얼굴을 희게 하는 법”, 「동아일보」, 1927. 1. 1. p. 3.
- 3) “화장 독본(6)”, 「동아일보」, 1933. 10. 20, p. 6.
- 4) “죽은개의 원인 예방 및 고치는 법(上)”, 「동아일보」, 1927. 7. 17, p. 3.
- 5) “죽은개의 원인 예방 및 고치는 법(下)”, 「동아일보」, 1927. 7. 19, p. 3.
- 6) “바다와 산에서는 화장은 이러케”, 「동아일보」, 1931. 8. 4, p. 4.
- 7) “화장 독본(2)”, 「동아일보」, 1933. 10. 13, p. 6.
- 8) “얼굴은 길러도 고마운 자외선”, 「동아일보」, 1931. 6. 29, p. 4.

과 기생이 많이 있는데 같은 검은 우산이라고 여학생이 찾는 우산은 소담한 것이용 기생이 찾는 것은 찬란하게 무늬나 수를 놓은 것이 많으면 대개 우산의 묘한 본새는 살이 짙고 조붓한 것이 가볍기도 하고 보기에다 경쾌하나 아직까지 조선에서는 모양보다도 내외를 더 중히 생각하여 우산을 사쓰는고로 이러한 새流行은 매우드문 터이라 하여 또 남자측의 봄철 양복 넥타이는 항용 짙은 유록이나 짙은 빨간 빛의 兩色지는 빛으로 무늬는 대개 넓은 것을 취하는데 가격은 이원 안팎이면 작가지가 있다 한다.

記事의 內容을 살펴보면 이때까지는 流行보다 男女間의 內外를 위해 洋傘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5년에는 미색, 분홍빛의 비단 양산이 유행하였고¹⁾ 1926년에는 가장 자리에 란간을 친것이 流行하였다²⁾(그림 13)



<그림 13> 가장자리에 란간친 양산
1926년 4월 21일

이 당시 여성들의 사치 풍조에 대해 쓴 글 중에는 양산의 사치스러움에 대해 쓴 글도 보인다. 이 때에는 洋傘에 流行 感覺이 加味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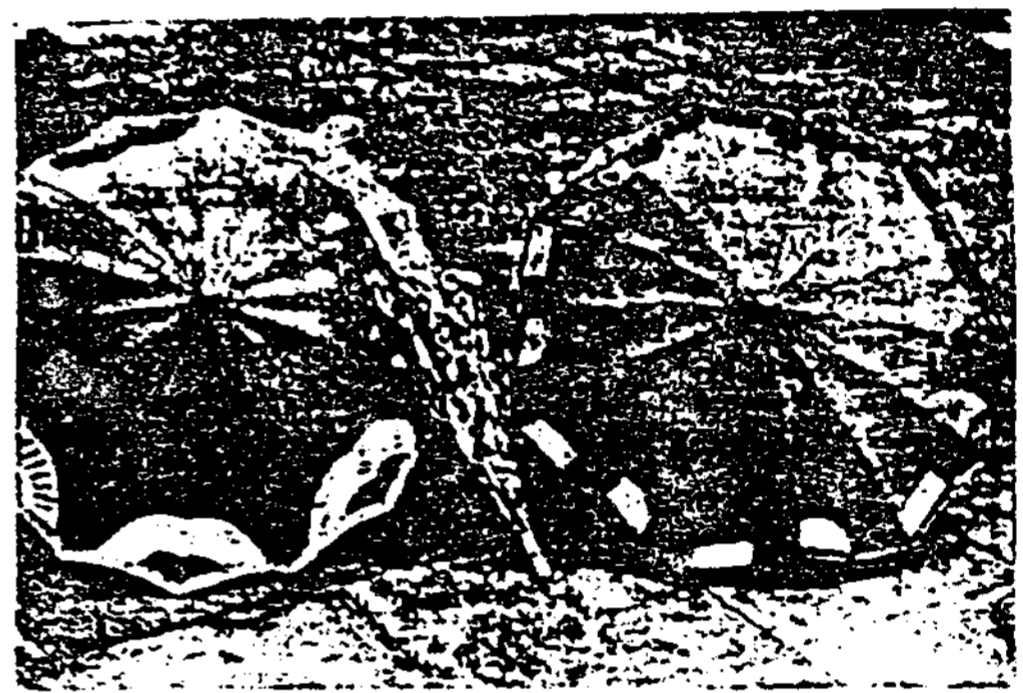
작년 그럭개 까지도 녀학생이나 혹은 려염집 부녀자 혼 이들은 검정이 안이면 흰 것을 만히 밧고 다니더니

고 쓰고 있다.

금년부터는 그네들도 기생이나 그 밧게 색달은 녀자들과 가치 밧갈잇는 양산을 만히 밧고 다니는 모양이 보힙니다. 그갓흔 양산에는 「우선」이니 「서진」이니 「금선」이니 「직기」이니 하는 일본비단 바탕에다 가공을 하고 여러가지 모양을 낸 것들인데...³⁾

로 나타난다.

또한 1932년에는 푸르고 파란 系統의 바라진 洋傘이 流行 하였다⁴⁾고 한다.(그림 14)



<그림 14> 푸르고 파란계통의 바라진 양산
1932년 4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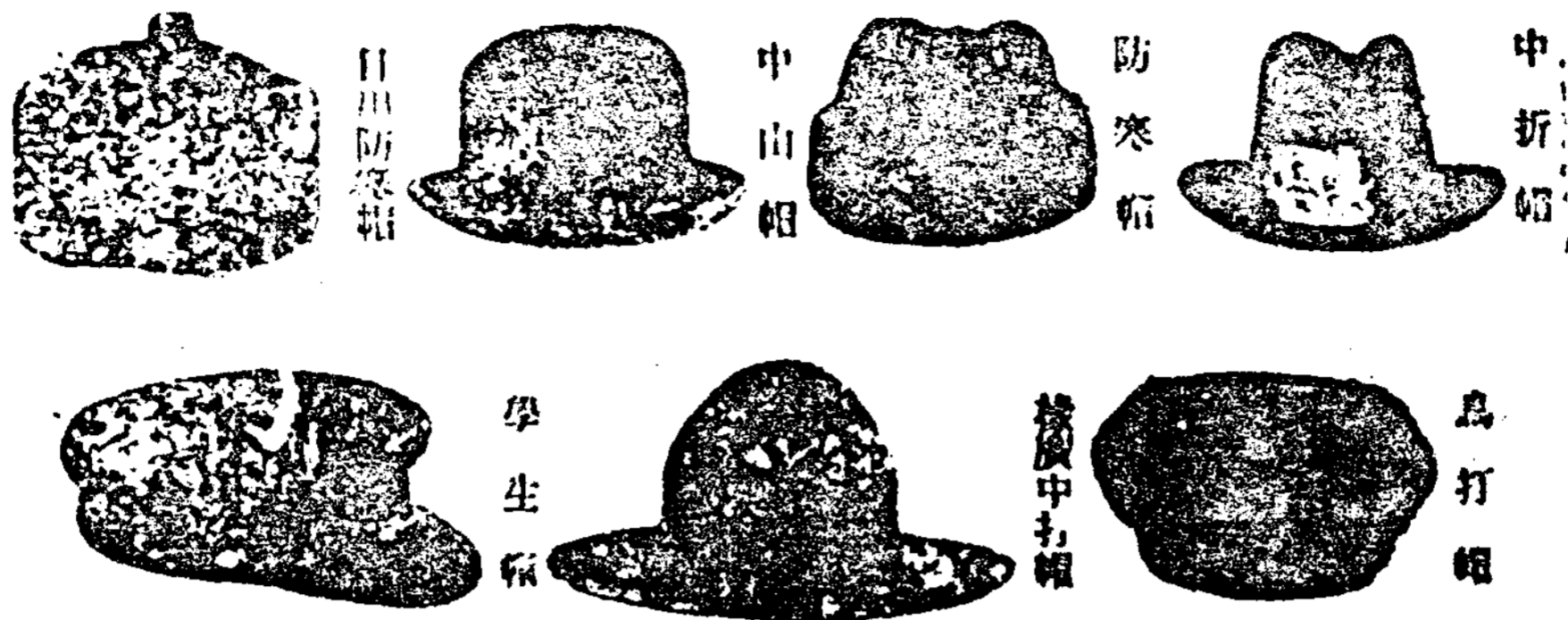
(2) 帽 子

帽子는 주로 男性用 帽子에 대한 記事가 많으며 學生帽, 中折帽, 防寒帽, 中山帽, 目出防寒帽, 五打帽, 緣廣中折帽 등이 있다. 1921년에는 대개 회색이나 순색이 많았고 中折帽子도 회색과 같은 옅은 빛이 잘 팔렸다고⁵⁾ 한다. 1933년 9월에는 中折帽子가 잘 팔리는데 帽子 춤이 높고 챙이 좁았다⁶⁾. 當時 流行하던 帽子들의 形態는 그림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3) 구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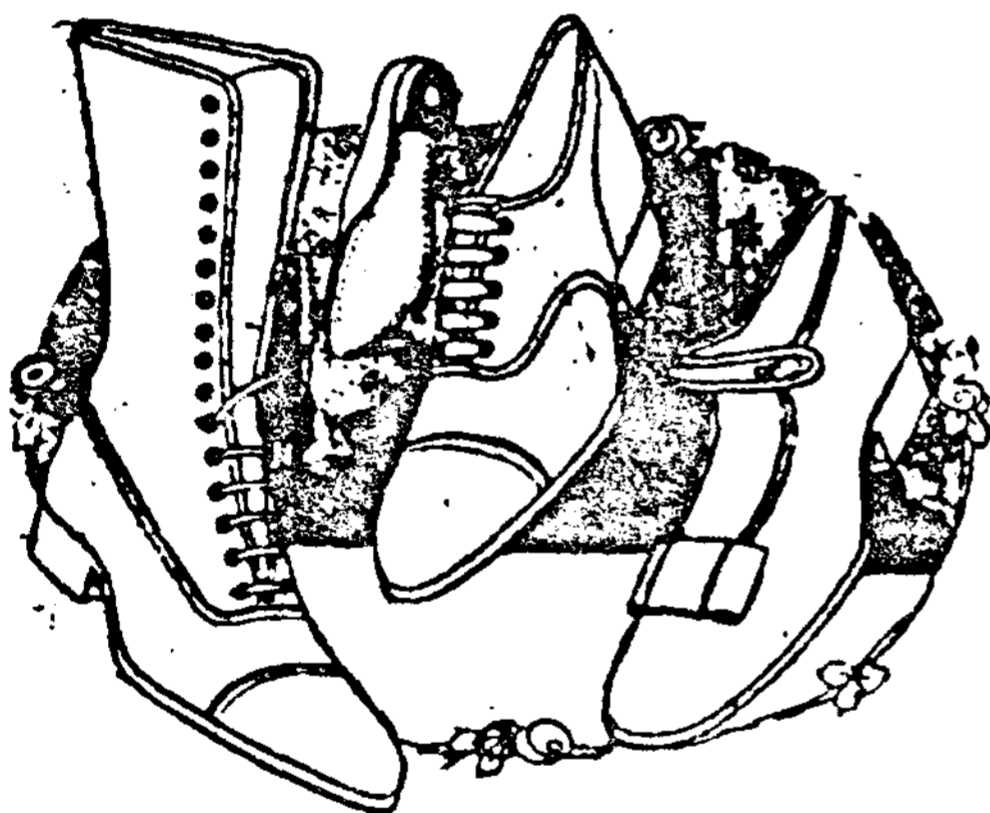
구두에 關한 記事는 5件이지만 衣服 記事에 따라서 잠시 言及되고 뚜렷한 變化나 特徵은 없이 基本

1) "경성 여자 사회의 유행과 사치의 종종", 「동아일보」, 1925. 8. 8, p. 2.
 2) "금년에 유행될 양산 넥타이 모자", 「동아일보」, 1926. 4. 21, p. 5.
 3) "금년에 유행될 양산 넥타이 모자", 「동아일보」, 1926. 4. 21, p. 5.
 4) "유행과 시세(三)", 「동아일보」, 1932. 4. 25, p. 4.
 5) "신춘을 仰하는 도회인의 신준비", 「동아일보」, 1921. 3. 12, p. 3
 6) "今夏의 유행", 「동아일보」, 1921. 5. 4, p. 3.



〈그림 15〉 1925년의 流行帽子
1925년 10월 30일

形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35년 3월 7일자 4면 記事에서 男女 구두의 하이힐은 없어지고 학생 구두가 숙녀 구두로 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16〉 男女 구두의 基本 形態
1925년 5월 22일

(4) 손수건, 장갑, 목도리, 핸드백

衣服의 가장 작은 品目이면서 衣服과의 調和가 가장 잘 이루어져야만 하는 손수건, 장갑, 목도리, 핸드백은 그때그때 衣服의 流行에 따라 변하였다. 新聞에 실린 記事들을 살펴보면 流行 衣服과 이러한 附屬品들의 相關關係를 알 수 있다. 1932년 4

월에 衣服에서 푸른 系統의 부드러운 감이 流行하자 손수건, 洋傘도 푸른색이 大流行하고 양말 카바의 목에도 푸른줄이 들어간 것이 流行하였다는 記事들을 읽을 수 있다”.

핸드백의 경우 구슬로 잔 핸드백²⁾과 쇠장식 핸드백, 접는 핸드백³⁾에 대한 記事가 보이며 1934년에 검붉은색, 옥색, 자주색, 오렌지색 등이 流行하였다

7. 白衣 廢止 및 染色衣 着用 獎勵

1920년부터 1945년 解放 以前까지의 東亞日報 記事 가운데 白衣 廢止와 染色衣 着用에 대하여 다룬 것은 모두 236件이었다.(附錄 I. 主題別 新聞 記事 目錄 參照)

白衣 廢止를 다룬 記事들은 다른 服飾 關聯 記事들이 文化面에 掲載된 것에 비해 거의 모두가 社會面 記事로 白衣 廢止 및 色衣 獎勵에 대한 啓蒙記事를 짧게 報道하는 形式이다. 이것은 이 獎勵策이 國家 次元에서 行政的으로 施行되던 問題였음을 示唆한다고 하겠다.

白衣는 예로부터 우리 民族의 特徵的인 衣服이었다. 白衣의 廢止에 대한 主張이 東亞日報를 통해 記事化 되기 始作한 것은 1922년으로 그 해 3월 31일자 記事에 咸南 知事의 黑色衣 着用 獎勵가 報道되었다. 以後의 白衣 廢止 및 染色衣 着用 獎勵 記事들을 살펴보면 각 年度別로 獎勵의 方法

1) “류행과 시세(二)”, 「동아일보」, 1932. 4. 24, p. 5.

2) “류행과 시세(三)”, 「동아일보」, 1932. 4. 26, p. 5.

3) “첫 봄의 아라모드”, 「동아일보」, 1934. 2. 6, p. 6.

이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受容의 정도와 特徵, 白衣廢止의 長短點에 대한 記事도 보인다.

白衣廢止와 染色衣着用은 郡, 面 單位의 官廳에서 積極的으로 나섰으며 新聞 記事도 각 地方別로 그 實行 정도를 詳細히 報告하고 있다.

記事를 通해 染色衣着用을 獎勵한 內容을 살펴 보면 대략 네가지 類型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宣傳 行列이나 講演會 등의 啓蒙性을 띤 獎勵이다.

黑色衣着用을 宣傳하기 위해 全南에서 宣傳 行列¹⁾을 하였고 全州에서는 色衣 獎勵 女高生도 出動하여 宣傳²⁾, 이리에서도 普校生들이 色衣 獎勵 行列을 하였는데 8백여명이 깃발을 들고 나섰으며³⁾ 정읍에서는 色衣 獎勵의 方法으로 장날마다 宣傳 行列을 하였다고⁴⁾ 한다. 이들 記事에서와 같이 街頭 行進이나 宣傳을 通해 色衣의 着用을 獎勵하였다는 內容들이 각 地方別로 거의 每日 報道되었다. 色衣着用 獎勵 강연 記事 또한 社會의 指導層에 있는 有名人士를 講師로 내세운다든가⁵⁾ 活動 寫眞 上映 등⁶⁾ 多樣한 方法으로 色衣 獎勵에 신경을 썼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각 地方別로 獎勵 成績을 報道하는 記事나 色衣 獎勵에 대한 表彰⁷⁾을 報道하는 記事들도 宣傳 講演 記事와 더불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둘째, 染料의 無償 分配 및 共同 購入과 같이 實質的으로 白衣를 染色토록 獎勵하는 法이다.

“色衣를 獎勵 染料 無料配給(창녕)”⁸⁾ “色衣 獎勵 澈底 染料 無常 分配”⁹⁾와 같은 記事에서는 染料를 無償으로 나누어주어 家庭에서 白衣를 染色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1930년 9월 14일자 新聞 記事에서는 忠北道에서 白衣 獎勵의 한 方法으로 染料의 共同 購入을 하였다는 內容을 볼 수 있다.

셋째, 色衣를 着用하게 됨에 따른 經濟的 利益을 數値로 提示하여 色衣着用의 長點을 浮刻 시키는 法이다.

一年間의 白衣 洗濯에 二百十七 시간 濫費, 개성 부민 전체를 보면 七百四十年을 허비, 금액으로 十三萬餘圖을 浪費 色衣着用하면 半分 절약¹⁰⁾.

등과 같이 色衣를 입지 않고 白衣를 着用할 경우 그 洗濯과 管理에 드는 時間과 돈의 損失을 個人과 集團 單位로 統計를 내어 資料로 提示하였다. 이렇게 色衣를 입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잇점을 돈과 時間單位로 가장 손쉽게 알게하는 方法이었다.

넷째, 白衣 着用者의 官廳 出入을 禁하거나 흰 옷에 먹물을 뿌리는 強制性을 띤 方法이다.

1930년 12월 16일자 6면에

城田 十一區에 色衣 獎勵회, 흰 옷 입으면 물감을 뿌리며...

와 같은 記事가 난 것을 시작으로 장거리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에게 먹물을 뿌렸다는 記事¹¹⁾¹²⁾가 자주 등장하였다. 1932년 1월 31일자 3면 記事에는 “경북 영주군에서는 흰 옷 입은 사람은 관청 출입을 엄금”하였다고 쓰고 있고 沙理院에서 白衣 着用者의 出入을 不許¹³⁾¹⁴⁾하였고 慶北에서는 色衣를

1) “咸南 李知事 色衣 獎勵”, 「동아일보」, 1922. 2. 16, p. 4.

2) “全州에서 色衣 獎勵 여고생도 출동 선전”, 「동아일보」, 1931. 1. 17, p. 6.

3) “裡里 普校生이 色衣 행렬”, 「동아일보」, 1931. 2. 28, p. 3.

4) “保寧도 색의 장려”, 「동아일보」, 1931. 2. 12, p. 3.

5) “色衣 선전 강연, 洪承均知事 出馬”, 「동아일보」, 1930. 10. 2, p. 6.

6) “染色衣 장려, 강연과 활사”, 「동아일보」, 1930. 10. 4, p. 3.

7) “色衣 장려 표창식”, 「동아일보」, 1932. 3. 2, p. 3.

8) “色衣를 장려 염료 무료 배급”, 「동아일보」, 1930. 1. 13, p. 3.

9) “色服 장려 철저, 염료 무상 배포”, 「동아일보」, 1937. 11. 5, p. 7.

10) “色衣 착용 선전”, 「동아일보」, 1932. 11. 10, p. 3.

11) “喜活劇 연출한 色衣 장려 妙法”, 「동아일보」, 1931. 3.1, p. 7.

12) “市日에 墨汁雨”, 「동아일보」, 1931. 3. 6, p. 7.

13) “경북 榮州郡에서는 흰 옷 입은 사람의 관청 출입을 嚴禁”, 「동아일보」, 1932. 1. 31, p. 3.

14) “色衣 장려코져 백의 출입 불허”, 「동아일보」, 1932. 11. 26, p. 3.

15) “울산 色衣 斷髮 장려”, 「동아일보」, 1932. 12. 1, p. 3.

입지 않을 경우 人夫로 採用하지도 않았다는 記事"를 비롯 많은 記事들이 強制的인 白衣 團束에 대해 報道하고 있다.

그런데 白衣 廢止 및 黑色衣着用 問題가 初期의 啓蒙的 次元에서 나아가 強制的인 團束으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 記事에 나타나는데 各界에서 이에 대한 不滿의 소리가 높아졌다는 記事도 나타났고 色衣 不着者에게 罰金을 徵收한다든가²⁾ 흰 옷에 물감을 뿌린데 反抗한다고 拘束한다든가³⁾ 흰 옷 입은 사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⁴⁾ 등의 지나친 團束을 하여 여기에 대해 不滿의 소리가 높다고 쓰고 있다.

심지어 喪을 당한 사람이 입은 흰 옷에 먹칠을 하고 暴行을 한 경우도 있었다. 1935년 12월 12일자 4면 記事와 1937년 12월 24일자 7면 記事에서는 각각 春川과 忠州에서 喪人의 白衣로 是非가 붙어 喪人이 暴行을 당한 애기와 面史員과 亂鬪劇이 벌어진 것을 쓰고 있다.

1920년부터 거의 每日 新聞의 紙面을 장식한 白衣 廢止에 대한 論議를 記事에서는 크게 3가지 理由를 들어 說明하고 있다.

첫째, 經濟的인 理由로 白衣의 洗濯에 드는 時間과 돈, 努力의 浪費를 줄이자는 것이다.

1년간의 白衣 세탁에 270시간 낭비 개성 부민 전체를 보면 740년을 거비, 금액으로 30만여원을 낭비, 色衣着用하면 반을 절약⁵⁾.

數字로 나타난 白衣와 色衣着用; 이해득실 대조 삼천여만원 비용과 십오만여시간 절약, 전朝鮮 인구가 色衣를 입으면 可驚할 色衣의 이익 / 매일 일가족 三時餘 경제 長端 단일군에만 可驚할 白衣 費損 色衣 입으면 백년이란 시간과 19만여원에 이익⁶⁾.

등과 같이 白衣의 非經濟性을 들어 讀者들에게 色衣着用이 必要한 理由를 說明하고 있다.

둘째, 心理的인 問題이다.

白衣는 그 빛이 죽음을 뜻하는 不吉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1921년 9월 28일에서 같은 해 10월 1일 까지 4회에 걸쳐 連載된 羅 惠錫의 “부인의복 개량 문제”라는 글에서 흰 빛이 喪服의 색이므로 日常服에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흰 색 대신 우리의 民俗服에 있는 原色을 사용하자고 하였다.

셋째, 美觀上의 문제이다.

흰 옷은 洗濯과 손질에 時間과 努力이 많이 들 뿐더러 자칫 손질이 소홀해 졌을 때에는 쉽게 더러워져 보기에 不潔하여 白衣를 染色하자는 것이다.

國內에서 色衣를 廢止하고 色衣를 着用하자는 意見이 높고 그 獎勵策이 積極的인데 反해 當時 美國에서는 白衣 運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記事가 있었다. 1930년 11월 2일자 2면 記事에서는

불결 방지책으로 米國서 白衣운동 色衣는 위생상 대불가 朝鮮과는 정반대

라 하여 衣服의 衛生에는 白衣가 오히려 좋다 하여 白衣 運動의 背景을 報道하고 있다.

當時의 社會가 産業의 育成에 努力을 기울이고 있었고 衣服管理의 側面에서 볼 때 白衣가 生産에 參與하는 勞動服의 色으로서는 適合하지 않아 白衣의 衛生性을 버리고 대신 色衣의 經濟性을 取한 것으로 보인다.

白衣 廢止의 必要性에 대한 社會 各界의 啓蒙과 官公署 次元의 強力한 獎勵와 團束으로 해서 白衣의 着用이 줄어들고 대신 染色衣의 着用 比率이 높아졌음을 알리는 記事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33년 12월 30일자 3면 記事에서는 같은 해 12월 10일 集計한 慶南 咸陽郡의 色衣着用者 比率을 斷髮은 9할 色衣는 8할 未斷髮者 1540명 이라고 쓰고 있다.

그 뒤로도 “色衣는 4할 단발은 9할, 부산 색전에

1) “色衣 不着者 공사에서 不用”, 「동아일보」, 1933. 3. 7, p. 5.

2) “2월 부터는 白衣엔 벌금”, 「동아일보」, 1934. 1. 13, p. 3.

3) “白衣 受難시대, 흰옷에 물감을 뿌려”, 「동아일보」, 1933. 11. 18, p. 5.

4) “色衣 不着자의 얼굴에 먹칠”, 「동아일보」, 1934. 12. 22, p. 5.

5) “色衣 착용 선전”, 「동아일보」, 1932. 11. 10, p. 3.

6) “數字로 나타난 白衣와 色衣 착용”, 「동아일보」, 1933. 1. 29, p. 2.

모인 5만 군중 白衣는 女子 有髮은 老人”¹⁾ “경기도 내에 色衣가 9할”²⁾ “色衣 입은 사람 68%가량”³⁾이라는 記事에서 色衣 着用이 定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色衣 受容의 정도를 報道하는 記事에서 特徵적인 것은 色衣의 受容에 男女의 차이와 都市 農村間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1934년 3월 6일자 5면 記事에서 부산에서의 色衣 着用을 보도하면서 “... 白衣는 女子 有髮은 노인”이라고 쓰고 있어 女子가 男子에 비해 色衣 着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33년 4월 12일자 2면 記事에서는

色衣 장려가 농촌에만 편중한다 하여 도회지에서 色衣 장려를 실시한다.

라고 報道하고 있어 農村에 비해 都市의 色衣 受容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農村이 都市에 비해 集團의 結束力이 비교적 높아 獎勵나 團束이 쉽고 社會 活動이 적은 女子 衣服에 까지 團束이 어려웠으리라는 推測이 可能하다.

V. 結 論

1920년에서 1945년 解放 以前까지 東亞日報에 나타난 服飾을 主題別로 分析하여 當時의 服飾 現象에 대해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男女의 衣服을 다룬 記事들은

첫째, 男子 洋服의 形態가 짧은 上衣, 좁은 바지통이던 것이 어깨가 넓고 길이가 긴 上衣에 바지의 허리폭도 너긋한 스포츠복 스타일로 바뀌었다. 流行色은 회색, 곤색을 기본으로 남색, 자색, 갈색, 붉은 빛등이 流行하였다. 衣服 品目으로는 스프링 코트, 저고리, 조끼, 와이셔츠, 바지 등이 있었다.

둘째, 洋服의 機能성을 取하여 女子 衣服에도 洋服이 普遍的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셋째, 女子 韓服 改良은 女性의 乳房 解放이 주된 目的이었고 치마허리를 조끼허리로 대신하고 저고리 기장을 늘이는 등의 形態 變化를 보게 되었다.

넷째, 兒童服의 경우 外衣와 內衣 모두 機能성과 衛生성을 重要視하였으며 洋服이 널리 受容되었다.

다섯째, 메리야스 內衣가 새로 紹介되는 段階에 있어 特性 및 손질法 등에 대한 것이 記事化 되었다.

2. 衣服 材料는 韓服감과 洋服감, 人造編, 毛皮, 毛布類, 編織物 등이 記事화 되었고 編物에 대한 記事가 자주 등장하였다. 감은 倭紗, 羅倭紗, 唐항라, 한산모시, 공주춘포, 안동포, 숙고사, 국사, 진주사, 생노방, 관사 등이 쓰였고 양복감은 린넨, 알파카, 사아지, 스코취, 홈스판 등이 쓰였다.

3. 衣服 管理를 다룬 記事는 洗濯, 保管法이 主를 이루었고 洋服 洗濯과 毛皮類의 保管이 주로 다루어졌다.

4. 머리 모양은 男子의 경우 白衣 廢止와 더불어 實施된 記事가 主를 이루었고, 女子의 경우 外國의 長髮 流行 記事가 많이 실려 이 記事들이 國內의 女子 머리 모양에 많은 影響을 준 것으로 보인다.

5. 化粧을 다룬 記事들은 基礎化粧, 校訂術, 成形手術, 色調化粧 등을 다루었다. 記事에서 理想로 삼는 化粧 形態는 時間과 場所에 適切하여 品位를 높여주는 自然스러운 것이었다.

6. 洋傘, 帽子, 구두, 핸드백, 손수건, 장갑 등과 같은 衣服 附屬品들은 衣服의 流行에 調和하여 變化하며 衣服에 비해 流行의 變化가 빠른 편이었다.

7. 白衣 廢止 및 染色衣 着用 獎勵는 白衣가 가진 經濟的, 心理的, 美的 缺陷을 理由로 廢止論이 擡頭되어 國家 次元에서 社會 各界의 啓蒙과 官公署 單位의 團束 등으로 거의 染色衣로 대체되었다.

위에서 나타나는 結果들을 綜合하여 보면 1920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時期가 洋服이 그 紹介 段階를 거쳐 大衆에게 受容되기 시작한 時期이며 이에 따른 變化가 服飾 全般에 걸쳐 나타남을 記事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각 主題別로 記事가 실린 形態나 新聞 紙面이 틀린 것도 特徵적이다. 白衣 廢止 및 染色衣 着用 記事가 가장 많은 횟수로 記事化된 反面 社會면에

1) “色衣는 사할...”, 「동아일보」, 1934. 3. 6, p. 5.

2) “경기도 내에 色衣가 9할”, 「동아일보」, 1934. 3. 28, p. 2.

3) “色衣 입은 사람 68% 가량”, 「동아일보」, 1935. 3. 8, p. 2.

各地方別色衣着用獎勵內容을 조금씩 報道하였고 韓服改良의 問題는 짧은 時期동안 重點적으로 論議되다가 繼續되는 論議가 없이 新聞紙面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衣服의 品目이나 流行스타일 보다는 衣服材料나 管理, 衛生을 다룬 記事가 더 많았는데 이것은 當時洋服이 紹介되기 시작한 直後부터 어느 정도 受用되던 時期까지 였으므로 오늘날 처럼 流行의 개념이 확실히 適用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洋服의 受容은 白衣廢止 및 染色衣着用 運動과 韓服改良과도 時期를 같이 하면서 以前의 韓服爲主의 衣生活에서 韓服과 洋服이 共存하는 類型으로 바뀌었다. 1920년 初期에는 洋服의 손질 및 管理에 대한 記事가 많고 後期로 갈수록 洋服의 流行을 具體적으로 다룬 記事들이 많이 나타났다.

年度別로 나타나는 記事들의 特性은 1920년대에는 白衣廢止 및 染色衣着用, 女子 韓服改良, 衣服管理 등의 記事가 많고 1930년대에는 洋服을 비롯, 衣服全體의 流行에 대해 全般的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記事分析을 통하여 單純한 時事傳達 媒體로서가 아닌 歷史資料로서 新聞의 價値를 認定할 수 있었으며 이를 服飾研究에 適用하여 近代以後의 服飾을 照明해 볼 수 있는 契機가 되었다고 본다.

研究의 時期가 1945년 解放以前까지로 局限되었으므로 앞으로 解放以後에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東亞日報에 나타난 服飾研究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 萬吉, 「韓國近代史」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5.
- 강 혜원, 「의사 사회 심리학」 서울: 教文社, 1984.
- 高大 民族文化 研究所 編, 「韓國文化史 大系」, IV, 風俗史編,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1.
- 國史 編纂 委員會, 「한국사」, 16, 서울: 탐구당, 1975.
- 金 美子, “開化期의 文官服에 관한 研究”, 「복식」, 창간호, 한국복식학회, 1977.
- 김 영희, “개화기 양복도입과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 대학교, 1987.
- 김 희정, “開化期 織物에 관한 考察”, 석사학위 논문, 이화 여자 대학교, 1985.
- 南潤淑·全惠淑, “開化기5의 商人 服裝”, 「복식」, 제 8호, 한국복식학회, 1984.
- 東亞日報社, 「東亞의 紙面 半世紀」, 서울: 동아일보사, 1970.
- 東亞日報社, 「東亞日報社史」, 卷一(1920~1945), 서울: 東亞日報社, 1975.
- 박 봉식, 「近代以後 國際 政治史 資料 選集」 서울: 서울 컴퓨터프레스, 1984.
- 박 윤, “개화기 남자 복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여자 대학, 1986.
- 백 중기, 「근대 한일 交涉史 연구」 서울: 正音社, 1980.
- 愼 鏞廈·李 光麟, 「史料로 본 韓國 文化史」 서울: 一志社, 1984.
- 愼 鏞廈, 「韓國近代史와 社會變動」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80.
- 安秉植 等著, 「韓國近代 民族 運動史」 서울: 돌베개, 1980.
- 元 瑛玉, “우리나라 洋裝의 變遷” 「국민대학 논문집」, 1972.
- 柳喜鄉,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7.
- 尹炳奭 編, 「한국 근대사론」 서울: 지식산업사, 1979.
- 尹炳奭 等, 「韓國史 大討論」 V.3 개화운동과 갑신정변, 삼성문화재단, 1976.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1983.
- 李光麟, 「開化黨 연구」 서울: 일조각, 1979.
- 李圭泰, 「開化百景」 서울: 신태양사, 1971.
- 李明姬, “근대 한국 복식의 변화요인”, 「복식」 제 5호, 한국복식학회, 1981.
-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自楊堂, 1947.
- 李松姬, “개화기服飾의 변천과 그 요인” 석사학위 논문, 이화 여자 대학교, 1984.
- 李順子, “고종시대의 무관 복제에 관한 소론” “대한 가정 학회지” 제19권, 제 1~4호, 1981.
- 李正玉, “開化期의 韓國 軍人 服飾 研究” 「영남대 논문집」, 9, 1975.

李 炫熙, 「韓國開港百年史」 서울: 乙酉文庫, 1976.

趙 恒來, 「開港期 對日 開化史 研究」 서울: 營雪出版社, 1973.

洪 以變, 「한국 근대사: 1801~1945」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75.

ABSTRACT

A Study on the Costumes in the Dong A Il Bo

- 1920 ~ 1945 -

Son, Myong Im-Kim, Jin Go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 closely conditions of costume between the Modernized period and Liberation with newspaper materials. Because newspaper generally appear society conditions in those days on rapid and across-the board basis.

The Modernized period is extremely change among history of costum(ordinance prohibiting top knots, allowance of foreign clothes putting on). Because this change have been spontaneously not by internal desired but Western input by the strong nation of imperialism to enclose Chosun, they was accepted by the general public later under the rule of Japaneses Imperialism. Consequently, study of costume play an important part periods between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and Liberation.

This study apply to newspaper characteristic for custume, and closely examine an important costum condition of those days next time, and present costume material in those days that composed the account catalog appeared periods between the first publication(1920) of the Dong A Il Bo, and in the year 1945, it is as follows.

1. Foreign clothes of men generally accept the general public on look at from form change, in the 1920's had come short Jackets and narrow trousers into fashion, in the 1930's had

come trousers of generous waist band with broads shoulder and long Jackets. Catalog of Major clothes is as follows ; Spring coat, Jacket, Vest, Shirt, etc. While pants had come trousers into fashion

2. Functional characteristic of Foreign clothes was the possible acceptance of women's foreign clothes. It relate with much discussion to improve Korean development in those days and substitute foreign clothes for Korean clothes because of institence in those days to improve functional clothes life.
3. An improvement women's Korean clothes generally take aim at women's nipple liberation, substitute vest waist for skirt waist, appear seamless one-piece skirt of shade length, and long dress length of Jacket.
4. Children's clothes give an account of functional and sanitary conditions, handling method, washing method.
5. Clothes materials give account of foreign clothes material, artificial silk, furs, cotton fabrics, and etc.
6. Clothes management give an account of washing, keeping method, washing method of foreign clothes, and keeping of furs.
7. The hair generally had come short hair into fashion in men's case, while accounts on long hair fashion of foreign nation effect in case of women.
8. Describing on beauty care manage primary beauty care, reform, plastic operation, and shade beauty care. Ideal beauty care deal with natural and dignified buauty care.
9. Accesaries (hat, handbag, handkerchief, gloves) change with fashion of clothes, it rapid more than clothes fashion.
10. On encouragement of abolition of white clothes and putting on dyeing clothes, because of economic defect of white clothes, psychology, and beauty consequently, white clothes is on the rise abolition. In national level almost substitute dyeing clothes for control and improvement of people of all social standings consequently, dress and its ornaments conditions in those days analyzed account of

Dong—A Il Bo accept the foreign clothes that introduced internal country of the whole century, and substitute dyeing for white clothes.

Costume condition in those days appear the mixed conditions of Korean clothes and Foreign clothes. In the 1920's is the first consideration dress

and its ornaments form of Korean clothes. As later goes on foreign is given much weight in the whole clothes life. Account of foreign clothes managerial ways appear in the 1920's, while those facts prove the point that appeared the account that always dealt with concrete content of foreign fashion in the 1930's.